



보 도 자 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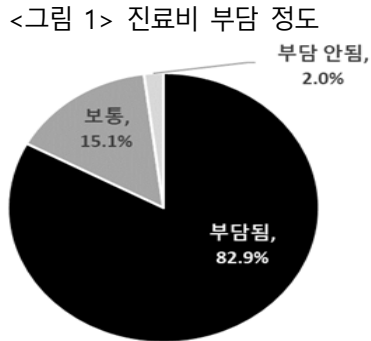
책임자 김석영 실장(보험산업연구실, 3775-9029)
작성자 김경선 연구위원(3775-9028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3.2.10(금) 조간부터
 (온라인 2023.2.9(목) 12:00부터)
배포 2023.2.8(수)
매수 총 4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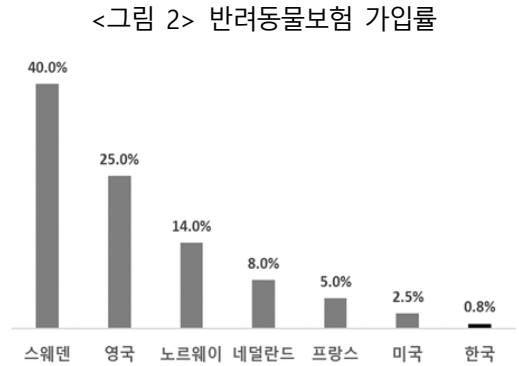
보험연구원, 『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』 CEO Report 발간

“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장 참여 촉진”

-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(보험산업연구실)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,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 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『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반려동물보험 가입률)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, 이를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.8%에 불과함
 - 의료기술 발달로 반려견의 수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, 82.9%의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함
 - 2022년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.8%이며, 이는 스웨덴, 영국, 미국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



자료: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(2021. 11. 24), "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,000원,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"



자료: 홍성원·전국보(2022), 「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」; NAPHA(2022), "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2 Highlights"; Trupanion(2022), "Investor Presentation"

○ (시장 현황)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·공급이 미흡하고, 상품판매가 일부 보험회사에 집중된 상황임

- 반려동물보험은 수술 및 입·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, 피부/구강/탈구질환이 기본 계약으로 제공되는지 특약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거의 없음
- 반려동물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작은 규모이며, 2021년까지 상위 5개 보험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함

<표 1>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 추이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원수보험료		
	'19	'20	'21
상위 1개사	74.2 (80.65)	126.2 (80.53)	175.4 (80.85)
상위 5개사	90.2 (98.01)	151.7 (96.79)	216.1 (99.63)
전체	92.0 (100.00)	156.7 (100.00)	216.9 (100.00)

주: () 안은 시장점유율임
자료: 손해보험협회

○ (관련 제도) 반려동물등록, 표준화된 진료체계, 청구전산시스템 등 보험계약자·보험회사·동물병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,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

-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50%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,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

-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며,*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제도 부재,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는 구조임

* 동물병원별로 중성화 수술비(약 5배), 예방접종비용(2~7.5배), 복부초음파/혈액검사 및 X-ray 관련 검사비용(3.7~13.3배), 치과비용(22~80배), 입원비용(3.3~4.5배)에서 상당한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(출처: 허은아 의원실(2022. 8. 9)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한국소비자연맹 발표자료)

-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1년의 보험기간, 총수입보험료 한도(연간 500억 원), 진입 이후 높은 운영 부담 등으로 보험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

○ (경영 과제)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비 협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, 다양한 반려동물상품 개발, 판매채널 다양화 등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

-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의 제휴 또는 경영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, 동물병원의 네트워크 편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-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장하는 번들형 상품*, 반려동물 진료빈도가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, 헬스케어나 부가서비스 결합 상품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
* 한 개의 보험상품 가입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해사고(예시: 산책·여행중)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 있음

- 보험회사는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반려동물 가입률 및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,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보험상품 비교와 손쉬운 보험가입,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가 가능함

○ (정책 과제) 정책당국은 정보비대칭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개선, 진료체계 표준화,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및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,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비문(鼻紋)인식 등 생체인증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반려동물 개체 식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
- 진료체계 표준화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, 청구전산화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
-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기간 연장(1년→2~3년), 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 확대, 상품 심사와 지급여력 규제 등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

<표 2>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경영·정책과제와 기대효과

과제			기대 효과
경영과제	보험회사와 동물병원 간 네트워크 형성		• 동물병원 진료비 협상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완화
	다양한 상품 개발	요율 세분화, 번들형 상품, 정액형 상품, 부가서비스 제공	• 소비자 니즈 충족
		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/리워드 제공	• 보험가입자의 사전적 도덕적 해이 방지, 진료비 절감
	판매채널 다변화		• 보험가입 필요성 및 인식 제고, 소비자 접근성 강화 • 보험상품의 비교·가입 및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
정책과제	제도적 인프라 마련	반려동물등록제 개선	•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
		진료체계 표준화	•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비교·선택 기반 확립
		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, 청구전산화	• 진료비 정보 비대칭 완화 • (의료공급자) 과잉진료·청구 방지 • (보험회사) 손해율 관리, 합리적인 보험료 및 보상한도 산출, 다양한 상품 개발 • (소비자) 진료비 정보 접근성·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
	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침 마련		• 반려동물의 사전적·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진료비 절감 • 건강관리 지침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
	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		•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촉진, 시장 경쟁 활성화

첨부: CEO Report 『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